



전시회(2)



유럽 에너지기기 대형화 추세 반영
보쉬·람보르기니, 보일러 등 출품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34회 MCE(Mostra Convegno EXPOCOMFORT)'는 난방기기인 보일러를 비롯해 냉방기기, 피팅류, 펌프류, 목욕용품류 등 전체 26개관, 7개섹터로 구분되어 열렸다. 특히 ASIAN PAVILION이라는 아시안 특별관에는 중국, 대만 등을 비롯해 소재산업을 바탕으로 한 피팅류와 목욕용품 등이 전시돼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 3대 전시회로 불리는 MCE(Mostra





Convegno EXPOCOMFORT)는 올해로 34회를 맞았다. 격년제로 열리는 MCE 전시회 기간동안 약 1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다.

열기(빨간색), 냉기(파란색) 등 분야별 색션을 색깔로 구분해 전체 7개색 선으로 26개관에서 나눠 진행됐다. 먼저 빨간색으로 대표되는 열기관에는 이탈리아의 MTS 그룹, 대표 도시가스사인 IMMAR GAS, 보일러 전문제조업체인 Unical, Beretta 등이 독립운영관으로 전시됐다.

열기관은 가장 큰 특징은 최근 유럽의 M&A를 통한 에너지기업계의 대형화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및 스포츠카 전문브랜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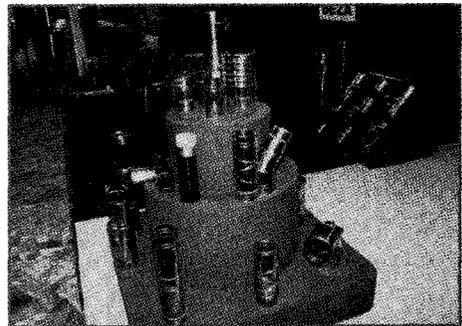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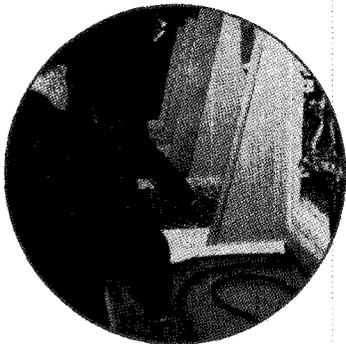
알려진 보쉬와 람보르기니가 보일러 등 에너지기기 제품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보쉬는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 나라별로 보일러 등 에너지기기 업체를 한 곳 이상을 보유한 에너지기기 전문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아시아에는 중국에 공장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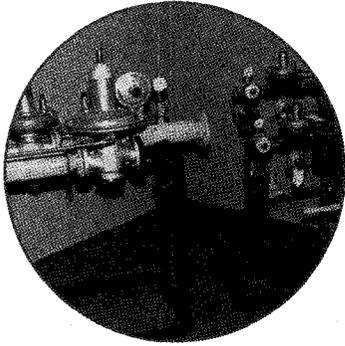


유럽의 보일러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부품 공동구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도 GIANNONI 등 열교환기 전문업체들의 제품 출품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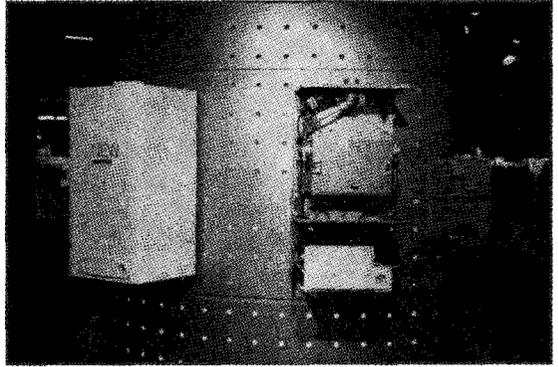
특히 출품한 거의 모든 보일러사가 콘덴싱보일러를 전시해 시대 주류로써 콘덴싱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기는 부품전문업체의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구조상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같았다. 대신 보일러의 디자인, 가격 등을 통해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를 참관한 국내 보일러사 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보다 콘덴싱보일러의 출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열교환기 등 주요부품의 큰 특징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콘덴싱 열교환기 등 보다 기능적인 제품을 공동구매하고 대신 디자인 등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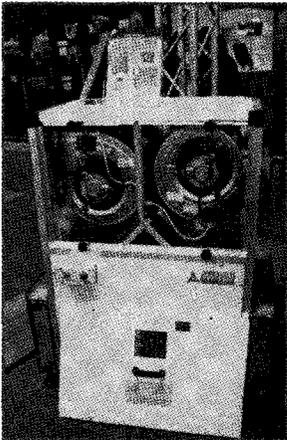




냉기관으로 구분된 파란색 섹션에는 에어컨, 공기조화기, 냉동기 등이 출품됐으며,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등 국내 업체도 출품돼 눈에 띄었다. 환경친화적인 R407C, R401C 등 냉매 사용을 전면에 부각시킨 제품 출시가 주류를 이뤘으며, 천장구석형, 바닥상치형, 천장형 등 다양한 실내기도 선보여 관람객의 발걸음을 잡았다.



냉기관과 열기관이 접목된 14관에는 Co-gen과 냉·난방·급탕이 가능한 제품 등이 전시됐다. 지난 1956년 설립돼 열기, 에어컨 등 솔루션 공급업체인 ROBUR는 가스를 연료로 하는 GAHP(Gas Fired Absorption Heat Pump) 시리즈인 A·AR·W·HR 등을 선보였다. 또 냉·난방 겸용의 Gas Fired air-conditioning and heating인 GA도 신제품으로 출시했다. 또 COSMOGAS는 위에는 보일러를, 아래에는 실외기가 접목된 제품인 'FRYO ATP' 시리즈 3종을 내놔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기간동안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바닥난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화된 바닥난방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MSN 메신저에서 수시로 보는 날씨

아래 주소를 대화상대로 추가하게 되면,

1분간격으로 대화명에 지역날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화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현재 날씨와 오늘과 내일의 예상 날씨도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날씨 MSN 주소 -

ohgoodday_s@hotmail.com 서울/인천/경기

ohgoodday_jb@hotmail.com 전북

ohgoodday_gb@hotmail.com 대구/경북

ohgoodday_cb@hotmail.com 충북

ohgoodday_jj@hotmail.com 제주

ohgoodday_jn@hotmail.com 광주/전남

ohgoodday_gn@hotmail.com 부산/울산/경남

ohgoodday_cn@hotmail.com 대전/충남

ohgoodday_gw@hotmail.com 강원